

추도문

송상용 교수님께 드리는 글

박진화†

제가 선생님께 올리는 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편리함을 성찰하지 않은 채로 살다 보니 선생님과도 긴 편지글로 소식을 전하기보다 짧은 이메일로만 소통했었네요. 오늘은 이메일이 아닌 편지글로 제게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록해 두고자 합니다.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전해야겠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하기 전에 선생님을 직접 찾아뵈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던 점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마땅히 시간을 내서 선생님을 뵈어야 했었는데 당장 처리할 일들에 쫓겨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졸업 후 과학대중서 번역, 출판 일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학술 활동을 하는 후학뿐만 아니라 과학 대중화나 과학기술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던 활동가들에게도 선생님은 관심을 보이셨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전 선생님의 소개로 과학저술인협회를 알게 되었고 과학 출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학저술인협회에서는 선생님의 활동 덕에 “과학에서의 보수와 진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에서도 사회운동으로 과학기술운동이 존재하고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minerba64@naver.com

있음을 알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990년 6월 7일에 열렸던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강사로 재직 중이던 홍성욱 선생님이 진보 과학운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은 과학주의와 반과학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변혁적인 과학론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하셨던 선생님께서는 “반과학운동이 소련과 동독의 일부 관변 학자와 녹색당의 영향력이 강한 서독을 빼고는 세계적으로 이미 몰락한 낡은 이론인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빨리 극복해 과학운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과학자들의 임무라고 말하셨더군요. 미국 유학 시절 과학운동을 접하셨던 선생님이시라 한국에서도 과학의 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학기술자운동이 확산되어야 함을 이날 강조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89년 10월 한겨레 칼럼 글에서 “과학이 중립이 아니라면 과학자는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 이 나라의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을 악용하는 책임이 정부, 기업에 있다는 낡은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글을 통해 과학기술자의 조직적 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해 두신 적이 있으셨지요. 그리고 저도 관여했던 1987년 두리암에서 시작한 한국의 과학기술운동을 출발부터 지켜봐 주셨고요. 사실 저는 당시 과학기술자 노동운동과 민중을 위한 지식인으로서 과학자 운동이 결합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선생님과 깊이 있는 논의는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무렵 번역사무소 일을 하면서 과학 기자들과 교류가 많았는데 그때 기자분들로부터 선생님의 명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선생님으로부터 기사에 쓰인 지명이나 인명을 반드시 고칠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기자께서는 교정 요청을 피하려고 일부러 선생님과 만남을 피했다는 이야기까지.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읽히는 과학 기사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능하면 철자 교정까지 하려고 하셨던 선생님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단어 선택이 올바른 과학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신념에서 비롯된 선생님 나름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선생님은 “영원한 청년 학도”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뒤늦은 독일에서의 유학으로 국내 학회에서 선생님과 마주칠 일이 없던 저는

베를린에서 선생님의 학구적 열정을 처음으로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방문 교수로 베를린자유대학에 오셨을 때 선생님은 과학사와 과학기술학(STS) 관련 학과들에서 개최하는 특강, 세미나 참석에 열의를 보여주셨지요. 사회구성주의 이론, 과학사의 실험실 연구 동향 등 다양한 STS 이론을 섭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폴란드 동료 방문 교수를 친구로 만드셨지요. 마침 저와 유학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신동민 부부, 현재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되신 유학생을 게스트하우스로 부르셔서 폴란드 방문 교수와 저녁 디너 파티를 열어주셨답니다. 그것도 선생님께서 독일 슈퍼에서 장을 보셔서 손수 만든 요리로. 선생님의 격의 없는 환대에 그 자리에 모인 유학생들은 유학 생활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학문 관심이 워낙 폭이 넓다 보니 베를린 유학생들에 대한 관심 역시 과학사 전공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철학, 역사학, 정치학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이 선생님과 만남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선생님은 다방면의 관심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저처럼 과학사 혹은 STS 전공으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학회 혹은 심포지엄 자리에서 한국의 과학사 혹은 과학학 연구 동향 혹은 역사에 관해 발표하려고 발표문을 준비하실 때 선생님은 매번 유학생들 동향을 내용으로 담으셨습니다. 이런 관심 덕분에 저는 베를린 대학에서 학업에 더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베를린 유학 생활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과학사학회에서 원로 교수님들께 일일이 제 소개를 해주시며 학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과학사와 과학기술학 학회에서 제가 동료, 선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처음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고마움을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직접 실천 활동으로 옮기고자 한 과학자로서 저의 귀감이셨습니다. 과학기술 민주화를 목표로 설립된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과 유네스코가 주관한 시민합의회의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셔서 생명복제기술에 관한 사회적 논쟁

을 이끌었고 과학기술인현장 초안을 만들었고 생명윤리 실천을 제도화하고자 노력하셨죠. 황우석 사태 등 과학계에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때면 언론을 통해 과학자들의 성찰적 행동이 필요함을 주장하시기도 했고요. 생명윤리 실천 활동과 병행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직접 관여하며 환경운동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선생님의 윤리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과학자들의 임무라고 주장하기도 하셨고요. 과학기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 역시 과학자의 역할이고 또한 과학사와 과학기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고 이를 실천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시민과학센터 활동을 통해 선생님의 실천을 따르고자 했으나 충분히 성실하게 실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기억으로 제가 마음속에 또렷하게 각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다른 동료 연배 교수님들이 떠나간 학회에 한결같이 참석하셔서 어린 후학들의 발표를 경청하시고 틀린 단어를 바로 잡아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철학, 환경사회학, 서양사 등 다양한 학회들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뵈는 선생님은 영원한 청년 학도였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배우고 익혀 후학들과 학문적 동지 관계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생님의 의지가 학회 참석으로 보여진 것이 아닐까요? 저도 배움의 정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박진희 올림